



환상의 횡단으로부터 레닌의 반복으로
- 슬라보예 지젝(S. Žižek)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김현
(Authors) Hyun Kim

출처 [범한철학 74](#), 2014.9, 381-413 (33 pages)
(Source) [PAN-KOREAN PHILOSOPHY 74](#), 2014.9, 381-413 (33 pages)

발행처 [범한철학회](#)
(Publisher)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57890>

APA Style 김현 (2014). 환상의 횡단으로부터 레닌의 반복으로. 범한철학, 74, 381-413.

저작권 안내 전남대학교
이용정보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Access) DBpia에서 68-131-42-142
누리미디어는 [2015/09/23 22:15 \(KST\)](#) 이 자료를
d)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환상의 횡단으로부터 레닌의 반복으로 - 슬라보예 지젝(S. Žižek)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 현*

【주제분류】 독일관념론, 사회·정치철학

【주요어】 실재계, 상징계, 주체, 실제, 부정성, 환상, 행위, 공산주의

【요약문】

슬로베니아의 라캉주의적 헤겔주의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슬라보예 지젝(S. Žižek)의 사상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들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들 가운데 한 편은 지젝의 담론이 ‘맑스-레닌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돌파할 유력한 대안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지젝의 담론이 일관되지 않고, 그의 담론의 이론적 자원에 대한 지젝식의 전유와 해석은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닌으로의 복귀’, ‘공산주의’, ‘좋은 테러’와 같은 지젝의 급진적인 구호들이 현실적 정세와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 지젝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평가는 궁극적으로 지젝의 레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한 가지 논점으로 환원된다. 지젝의 사상을 둘러싼 국내·외 연구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지젝의 사상을 ‘포스트 맑스주의’로부터 ‘레닌주의’로의 이행과 관련지어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이 글은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지젝의 해석이 주체, 저항, 행위, ‘환상의 횡단’ 및 민주주의 등과 같은 그의 주요 개념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레닌으로의 복귀’와 ‘공산주의’라는 지젝의 슬로건이 어떠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산물인지 검토한 후, 그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갖는 몇 가지 긍정적 함의들을 정리한다. 이 글은 지젝의 주장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비판적 평가에는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지젝의 레닌주의와 공산주의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지구적 보편화로 인해 모든 저항 동력을 상실해 버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자본주의의 너머를 기획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 전남대학교 철학과 BK21 횡단형 철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 계약교수

I. 들어가는 말

슬로베니아의 라캉주의적 헤겔주의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슬라보예 지젝(S. Žižek)의 사상에 대해 국내·외 연구자들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들 가운데 한 편은 지젝의 담론이 ‘맑스-레닌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를 돌파할 유력한 대안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반면, 다른 한편은 지젝의 담론이 일관되지 않고, 그의 담론의 이론적 자원에 대한 지젝식의 전유와 해석은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닌으로의 복귀’, ‘공산주의’, ‘좋은 테러’와 같은 지젝의 급진적인 구호들이 현실적 정세와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다. 전자의 입장은 지젝의 급진주의적인 정치적 기획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라는 좌파적 원칙의 고수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피폐해져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돌파할 유력한 대안적 담론이라고 환호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 지젝의 논의들은 그때 그때의 국제적 정세에 따른 ‘탁월한’ 전략적 제스처의 산물로서, 지젝식의 논의야말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진보적 입장의 ‘진정한’ 장애물로 폄하된다.¹⁾

지젝의 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젝이 라캉(J. Lacan)과 헤겔(G. W. F. Hegel), 맑스(K. Marx)를 전유하는 방식을 독창적인 재구성이라고 보기에는 이들 사상가들의 본래적 면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지나치게 많다. 특히 지젝의 라캉주의

1) 지젝의 사상에 대한 평가들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국내에 번역 소개되어 있는 연구자 가운데 이안 파커(I. Parker)에 의하면, ‘상이한 쟁점들에서 지젝의 개입들은 비밀관적이며, 그의 이론적 입장은 모순적이고, 맑스주의에 대한 지젝의 판본은 많은 맑스주의자들이 받아들일 판본이 아니다.’ I. 파커, 이성민 옮김, 『지젝』, 도서출판 b: 2008, 13쪽 참조. 이에 반해 토니 마이어스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는 투철한 맑스주의자’라는 지젝 자신의 단언을 근거로 지젝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맑스주의 사상가라고 평가한다. T. 마이어스,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예 지젝을 미워하는가』, 엘피: 2005, 49쪽 참조. 사라 케이(S. Kay)는 지젝의 사상 전반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개하면서도, 그가 제시하는 급진적 대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 케이, 정현숙 옮김, 『슬라보예 지젝』,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206~224쪽 참조.

적 헤겔 이해는 독일관념론의 문제사적 과정 속에서 헤겔 철학이 차지하는 이론적 위상을 칸트 철학의 지평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헤겔 철학에 내재한 고유한 문제의식을 손상시킨다. 둘째, 레닌으로의 복귀, 공산주의, 좋은 테러, 혁명적인 전위에 대한 지젝의 이론적 옹호는 반자본주의 좌파 연대를 구축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젝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우파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험성마저 갖추고 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지젝의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체제를 넘어설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만한 가치가 없다.²⁾

두 가지 비판 쟁점이 상호 분리된 듯 보이기는 하지만, 지젝의 이론적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독해를 지젝의 '창의적' 오독에 대비시키는 첫 번째 비판의 이념적 정향성이 지젝의 과격한 정치적 경향성과 일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비판은 궁극적으로 지젝이 표방하는 레닌으로의 회귀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한 가지 입장 차이로 환원된다.

지젝을 둘러싼 국내·외 연구자들의 상반된 평가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우선 이 글은 지젝의 사상을 그의 이론적 변화 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지젝이 주로 정통 맑스주의의 환원주의적 계급적대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취하고, 다양한 사회적대를 옹호하는 포스트 맑스주의의 이론적 대열에 속해 있었다면, 후기의 지젝은 오히려 계급적대에 기반한 맑스-레닌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포스트 맑스주의와 결별한다. 지젝의 이론적 전회는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체제로 간주하면서도 그 이외에 다른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기의 정치적 입

2)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3호에 실린 홍준기의 글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비판을 모두 포함한다. 홍준기에 의하면, '지젝은 궁극적으로 라캉주의자가 아니며, 지젝의 사상 원용 방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또한 지젝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그가 말하는 공산주의란 실제적 내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진정한 진보정치를 위한 공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기, "지젝의 '공산주의'가 공허한 이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3호, 2013. 12.11. 참조.

장을 기각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계급지배 기능으로 파악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변화와 맞물려 있다.³⁾ ‘레닌으로의 회귀’와 ‘공산주의’는 지젝의 이 후기 입장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다. ‘포스트-맑스주의자 지젝’으로부터 ‘레닌주의자 지젝’으로의 이론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왜 지젝이 ‘레닌’과 ‘공산주의’의 소환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지젝이 자신의 초창기 입장에 가했던 자기비판의 요점을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질서체제에 대한 그의 달라진 문제의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선 초기 포스트 맑스주의자 지젝으로부터 후기 레닌주의자 지젝으로의 이론적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이 글은 슬라보예 지젝이 표방하는 레닌주의와 공산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한다. 이 글은 지젝의 정치철학적 기획을 대표하는 레닌으로의 복귀와 공산주의라는 기표가 아무런 내용을 갖추지 못한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적 연구자들의 지적은 수용하되, 지젝 자신의 언급처럼 유토피아적 기획의 전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발본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이론적·실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유 실험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 글은 이상의 두 가지 목적을 다음의 논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장은 헤겔의 ‘부정성’(Negativität) 개념에 대한 지젝의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지젝의 주체 이론이 정립되는 논리적 과정을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지젝이 헤겔의 부정성 개념을 상징계와 실재계라는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개념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패배를 떠안는 영웅적 주체’라는 지젝의 주체 개념이 도출되는 논리적 과정을 분석한

3)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입장변화를 지젝은 ‘경제의 탈정치화’로부터 ‘경제의 재정치화’의 필요성으로, 혹은 신자유주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 경제적 장벽의 제거’에 대한 요구로 드러낸다. S. 지젝,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8, 570~572쪽 참조/S. 지젝,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 난장이: 2011, 151쪽 참조.

다. III장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The sublim object of ideology*)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라는 두 저작 사이에 놓인 단락을 중심으로, 주체, 저항, 행위, 민주주의 등과 같은 주요한 개념들에 대한 지젝의 자기비판과 이론적 재구성을 개관한다. IV장은 후기 지젝을 대표하는 슬로건 ‘레닌으로의 복귀와 레닌의 반복’을 ‘좋은 테러(신적폭력)’ 및 ‘공산주의’에 대한 지젝의 입장과 관련지어 논의한 후, 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라캉적 헤겔-패배를 떠안는 주체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지젝의 독특한 해석은, 초기 급진민주주의자이자 포스트 맑스주의자로서 지젝의 사상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다. 지젝은 헤겔 철학을 라캉의 정신분석학과 결합하면서, 헤겔 철학을 라캉주의적으로 재구성한다. 지젝의 헤겔은 라캉화 된 헤겔이다.⁴⁾

지젝이 라캉과 헤겔을 연결고리로 삼는 이론적 ‘중핵’은 헤겔의 ‘부정성’ 개념이다. 이것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 ‘실재계’라 불리는 것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⁵⁾ 부연하자면,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계는 헤겔의 부정성 개념과 동일한 운동 논리를 공유하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 장으로 표상되는 상징계 안에서 주체가 처한 위상을 해명하는데 이용된다. 실재, 부정성, 결여된

4) S. 지젝, 박정수 옮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랑: 2004, 146~147쪽 참조(*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verso*: London·New York, 2002. 본문의 인용과 쪽수는 번역본을 따랐음). 지젝은 여기에서 헤겔의 변증법과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이 이 책의 이론적 우주라고 밝힌 후, 이 세 가지 이론적 우주는 보르메오의 매듭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매듭의 중심이 ‘자크 라캉’이라고 적고 있다. 라캉을 통해 헤겔을 읽고, 헤겔을 통해 라캉을 읽는다는 지젝의 기본적 입장은 포스트 맑스주의자로부터 레닌주의자로의 지젝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지젝의 이론적 출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S. 지젝,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53쪽 참조.

5) S. 케이, 『슬라보예 지젝』, 37쪽 참조.

주체는 지젝의 저작 내에서 사회적 장의 매끄러운 작동과 완결을 방해하는 불가능한 것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이해되는 한편, 이 상징적 장에서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저항적 제스처의 참조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헤겔의 ‘절대적 부정성’은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긍정, 특수자와 개별자의 통일로서의 구체적 보편이라는 틀에 따라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⁶⁾ 자기 관계적 부정성이란 부정이 부정 그 자신에 관계하는 부정의 자기동일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부정은 부정 그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특정하게 규정된 내용을 산출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무화하는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첫 번째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산출된 내용을 부정 자신의 내용으로 취하고, 이를 통해 첫 번째 부정을 규정된 부정으로 정립하는 긍정적 부정이다. 따라서 자기 관계적 부정성은 추상적 부정이 아니라 구체적 부정성이자 긍정적 부정성이다. 이것이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표준화 된 해석이다.

지젝은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표준적 판본들을 잊어버리라’⁷⁾고 충고한다. 지젝에 의하면 ‘헤겔이 자기 관계적 부정성이라고 지칭하는 헤겔적 주체는 현상을 사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로 그 틈새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내용으로 충만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총체성이 아니라, 아무런 실정적인 내용도 제공하지 않는 순수하게 부정적인 제스처에 불과

6)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표준적 해석의 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진전을 획득하기 위해 유일한 것, 그리고 그 진전의 전적으로 단순한 통찰을 본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것이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명제의 인식이다: 부정자는 [부정자외] 꼭 마찬가지로 긍정적이라는 것. 혹은 자기 모순적인 것은 영(Null, 零)이나 추상적 무(無)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그 특수한 내용의 부정으로 해소된다는 것, 혹은 그러한 부정은 모든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소하는 특정한 사태의 부정이라는 것. 따라서 규정된 부정이라는 것이다.”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 in *Werke in zwanzig Bd.*, 5, Suhrkamp: Ffm., 1980, 49쪽.

7)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에 대한 표준적 교과서적 설명들을 잊으라.” S. 지젝, 이성민 옮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2007, 40쪽. 지젝의 이러한 해석은 버틀러(J. Butler)와 라클라우(E. Laclau)에 의해서 ‘칸트주의적 헤겔 전유’라고 비판받는다. 이에 대한 지젝의 답변은 S. 지젝, 「끝없이 처음부터 반복하기」, J 버틀러 / E. 라클라우 / S. 지젝, 이성민 옮김, 『우연성 헤게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321~330쪽 참조.

하다.⁸⁾ 이에 대한 지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부정의 부정, 부정의 자기관계는 결코 긍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과정은 부정이 부정 자신을 좀 더 강력하게 부정으로서 재인식함으로써 부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 자기 관계적 부정성은 부정 자신으로의 귀환을 통해 부정을 강화하고, 부정을 급진적으로 만든다.⁹⁾ 이 때문에 헤겔의 부정성은 차이를 계기로 포함하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된 동일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헤겔의 부정성은 부정이 반복될수록 더 많은 부정을, 부정 자체 안에 더 큰 파열과 틈새를 열어 보인다.¹⁰⁾ 부정은 부정을 급진화 하고 강화하는 자기논리를 통해 부정 자신 안에 부정을 파괴하는 균열(부정)을, 부정 그 자신의 절대적 장애를 기입한다. 지적에 의하면 헤겔의 부정성 개념의 요점은 “이 극단적인 불일치, 이 절대적 틈새가 ‘절대적 부정성’의 신성한 힘이라”¹¹⁾ 데 놓여 있다.

절대적 부정성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지적은 헤겔이 칸트의 현상과 물자체라는 이원적 간극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간극을 절대화했다고 주장한다. 지적에 의하면 “칸트는 보편자 속의 균열을 정식화한 최초의 인물이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물자체가 현상의 피안에 있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현상 자체에 기입된 내속적 균열’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헤겔은 단지 칸트가 정식화 한 이원적 간극을 현상 자체의 내속적 균열로 전환함으로써 칸트를 더욱 급진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8) S. 지적,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43~44쪽 참조.

9) S. 지적,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120쪽 이하. “하나의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운동하는 내적 논리는 하나의 극단에서 정 반대의 극단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의 더 높은 통일로 운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이행은 첫 번째의 근본화이다.”

10) “그리하여 부정의 부정은 가장 순수한 지점에서의 반복 이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조처에서 어떤 제스처가 성취되고 실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처에서 이 동일한 제스처가 단순히 반복된다.” 혹은 “헤겔의 부정의 부정은 분열과 소외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뒤이은 동일성으로의 마술적 회귀가 아니라 탈중심화 된 타자가 주체의 무례함에 대해 가하는 바로 그 양값음이다.” S. 지적, 『까다로운 주체』, 125쪽, 128쪽.

11) S. 지적,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99~100쪽.

12) S. 지적,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111쪽.

물자체는 현상의 완결성과 일관성을 방해하는 현상의 균열에 다름 아니다. 지젝이 보기에 헤겔은 ‘칸트 자신보다 더 칸트답다.’¹³⁾

지젝은 이러한 해석을 헤겔 철학의 모든 명제들로 확장·적용한다. 예컨대 ‘주체로서의 실체’란 주체와 실체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에 기입된 내속적 균열이자, 주체의 완전한 동일성을 방해하는 ‘무엇’을 뜻한다. 또한 ‘현상으로서의 본질’은 현상을 본질의 자기 타자로 정립하고, 현상을 계기로 한 본질의 통일이 아니며, 현상 자체에 기입된 간극, 즉 현상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현상의 틈새이자, 장애다.¹⁴⁾ 따라서 본질, 실체, 이데아, 물자체는 현상, 주체의 피안에 존재하는 실정적(positiv)인 어떤 것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기입된 공백이자 간극이며, 자기 동일성을 교란시키는 절대적 틈새다. 핵심은 현상, 주체가 오직 이 틈새와 장애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는 데 놓여 있다.¹⁵⁾ 지젝은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주체의 완전한 자기 동일성의 이 ‘불가능한 조건’이야말로 주체를 주체로서 정립하는, 다시 말해 주체를 주체로서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역설적인 결론을 끌어낸다.¹⁶⁾

13) “칸트는 여전히 물자체를 표상과 현상성의 영역 너머에 실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헤겔의 입장은 현상성 너머에는, 표상의 영역 너머에는 무(無)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현상들은 모두 이데아와 근본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경험, 근본적 부정성의 경험, 양자 간의 근본적인 간극에 대한 경험, 이러한 경험은 이미 순수하고 근본적인 부정성으로서의 이데아 자체이다. 칸트가 여전히 사물의 부정적 현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미 물자체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자체는 바로 그 근본적인 부정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S. 지젝,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343~344쪽(S. Žižek, *The sublim object of ideology*, verso: London, 2008, 본문의 인용과 쪽수는 번역본을 따랐음).

14) “현상과 본질간의 균열은 현상 자체에 내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현상의 영역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358쪽.

15)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337~384쪽 참조/S. 지젝, 『까다로운 주체』, 127~128쪽 참조.

16) 지젝의 여러 저작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이러한 논리는 지젝의 최근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정식화되고 있다. “변증법적 분석의 요점은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 모든 것이 자체에 고유한 방식으로 실패하며, 자체의 핵심에 균열, 적대, 불균형을 함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현실에 대한 헤겔의 시선은 살아 있는 모든 것에서 미래의 죽음의 흔적을 보는 린트겐 장치의 시선이다.”, S. 지젝, 『헤겔 레스토랑』, 37쪽.

물론 우리는 지젝의 헤겔 해석이 헤겔 철학의 원래적 문제의식을 손상시키는 오독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절대적 부정성을 부정의 극단화로, 텅 빈 공백으로 읽어내는 지젝의 헤겔 해석은 헤겔 철학을 칸트 철학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해석이라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젝은 그가 헤겔의 충실한 독자인가 아닌가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젝에게는 라캉의 주체 공식(혹은 환상공식 $\$ \langle a \rangle$)과 헤겔 부정성 개념의 결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¹⁷⁾ 이러한 결합을 통해 지젝은 사회적 장의 봉합 불가능성(불안정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고, 이 봉합 불가능성을 주체의 결여와 동일시함으로써 ‘환상을 횡단’하는 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구성해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젝의 헤겔해석은 라캉의 주체공식과 어떻게 결합하는가? 지젝은 우선 “주체란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다”¹⁸⁾는 라캉의 테제로부터 출발한다. 라캉의 이론에서 모든 주체는 상징적 장 속에서 주체로서 정립되기 위해 자신의 원초적 향유(남근적 향유)를 배제하고 억압해야 한다. 주체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징계의 규범들과 담화들, 규칙들을 주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주체로서 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초적 향유의 포기나 대가로 하여 상징계에 등록된 주체는 어떤 경우에도 상징적 장에서 주체의 완전한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상징적 장에서 주체가 취하는 모든 종류의 주체적 동일시는 주체에 기입된 타자성으로 인해 항상 실패로 귀착되며, 상징적 장으로부터 배제된 주체의 원초적 향유

17) 헤겔 부정성 개념에 대한 지젝의 전유는 그가 헤겔주의자인가 아닌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찬가지로 헤겔 부정성 개념을 라캉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지젝이 라캉주의자인가 아닌가와 관련이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젝은 헤겔주의자도 라캉주의자도 아니다. 지젝은 그저 ‘지젝’일 뿐이다. 지젝의 헤겔 철학 해석을 그의 정치철학적 기획과 관련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나중석, 「슬라보예 지젝의 헤겔 변증법 해석에 대한 비판」, 『사회와 철학』 27,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4 참조. 헤겔의 절대적 부정성 개념에 대한 지젝의 해석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줄고, 「공백으로서의 부정성」, 『헤겔연구』 25, 한국헤겔학회, 2009 참조. 혹은 홍준기, “무비판적 담론이 ‘지젝’ 환상 키워”,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9호 2014.06.03. 참조.

18)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305쪽.

는 모든 종류의 주체화에 저항하는 잔여물로 남게 된다. 지젝은 라캉의 이와 같은 주체 이론을 따라서 “주체는 정확히 이러한 잔여물에 상관적이라는 것을 함축한다.”¹⁹⁾고 말한다. 주체는 주체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잔여물을 통해서만 주체로서 존립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주체는 주체의 자기정체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통해서만 주체로서 존립할 수 있다. 헤겔의 부정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 동일성으로 귀착되지 않듯이, 지젝의 주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동일성을 획득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헤겔의 부정성이 부정의 거듭됨을 통해, 자기 안에 더 큰 간극과 틈새를 기입하는 것처럼, 지젝의 주체 역시 반복된 주체적 동일시에도 불구하고 주체화의 불가능성이라는 장애만을 떠안게 된다. 다른 한편 지젝은 주체의 주체화가 실패하는 주체의 실정적 조건, 주체 자신의 한계가, 다름 아닌 ‘큰 타자’(상징적 장) 내의 열린 공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체의 불완전성이란 주체들이 등록된 상징적 장의 불완전성의 이면일 뿐이기에, 주체가 포기한 원초적 향유는 상징적 장의 완결성과 자기 충족성을 방해하는 실재의 모습으로 귀환한다. 지젝이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부르는 이 실재는 앞서 주체가 포기해야 했던 원초적 향유를 의미하는 한편, 상징계가 자신의 작동을 위해 끊임없이 의지해야만 하는 참조점이 된다. 이 실재, 상징계 안에 회귀하는 억압된 것으로서의 실재는 현상에 기입된 절대적 간극이자 틈새이며, 물자체이자 본질이라는 지젝의 헤겔 해석을 반복한다. 지젝의 이론 안에서 상징계도 주체도 오직 그들의 완전한 자기동일성을 방해하는 틈새와 간극을 통해서만 상징계로서, 주체로서 존립할 수 있다.²⁰⁾

지젝의 해석을 일단 수용한다면, 사회적 장은 주체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매끄럽게 경험될 수 없다. 사회는 항상 주체를 완전하게 장악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사회로서 존립하는가? 왜 주체

19)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349쪽.

20) 이것은 ‘주체의 중심부에 있는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의 지점이고, 모든 기표작용의 여분이며, 찌꺼기이고 잔여분으로 산출된 것이자, 주체의 중핵이다.’,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307~311쪽 참조.

는 사회를 견고한 체계로 경험하는가? 지젝은 이 물음을 환상(fantasy)과 증상(symptom), 증환(sinthome)²¹⁾이라는 라캉적 개념을 통해 해결한다.

환상이 주체로 하여금 현실을 일관되게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를 의미한다면, 증상은 이데올로기적 기제에도 불구하고 주체에게 항상적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것을 지칭한다. 이때 증환은 환상과 증상의 관계 속에서 증상의 해소 불가능성을 지칭하는 증상 개념의 구체화를 의미한다. 환상은 주체의 본질이 주체화의 불가능성에 있다는 것을 가림으로써, 주체를 상징계 속에 안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증상은 상징계로부터 배제된 어떤 것이 주체 안에 있음을 가리키면서 주체를 늘 주체화로부터 비켜나가게 만든다. 지젝은 증상이 갖는 이러한 의미를 라캉의 명제를 따라 “상징계로부터 배제된 것은 실재로서의 증상으로 되 돌아온다”²²⁾고 정의한다. 증상은 늘 주체의 주체화가 실패하는 곳에, “세계가 실패하는 곳에서, 상징적인 소통의 회로가 끊어진 곳에서 출현한다.”²³⁾ 증환은 모든 주체화의 필연적 실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증환은 오직 증상으로서만 존재한다.

증상으로서의 증환이 상징적 장과 주체의 본래적 면모를 지적한다는 지젝의 저와 같은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환상이 사회의 불완전성을 봉합하는 반면,²⁴⁾ 증상은 끊임없이 사회의 결핍을 들춰내며, 사회 밖을 떠도는 유령적 외재성을 지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증상은 환상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징질서를 붕괴시킬 수 있는 변화의 계기이자, 저항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⁵⁾ 증상으로서의 증환은 라캉적 용어로 상징계로부터 배제된 실재와의 조우이자, 억압된 실재의 귀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젝의 저와 같은 주체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상징적 장의 파국을 기대해도 좋은가? 주체가 갖는 환상에도 불구하고 어김없

21)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03~151쪽 참조.

22)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32쪽.

23)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33쪽.

24) “환상은 대타자 안의 결핍을 참음만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Y. 스타브라카 키스, 이병주 옮김, 『라캉과 정치』, 은행나무: 2006, 124쪽.

25) Y. 스타브라카 키스, 『라캉과 정치』, 173쪽.

이 귀환하는 증환으로서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상징질서는 일관성과 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현실 질서에 저항하고 이를 변혁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지젝의 초기저작에서 이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억압된 실재의 회귀로서의 증상, 그리고 이 증상의 도래를 막아서는 환상과의 유희는 지젝이 현실적 장의 파국 가능성을, 주체적 저항의 가능성을 구성해내는 중요한 결절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의 주체적 존립은 오직 상징적 장안에서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에, 주체는 상징질서의 전면적인 파국을 통해서 이 질서 속으로 회귀하는 억압된 것으로서의 실재를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상징적 장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완전한 무화, 그리고 주체의 절멸로서의 죽음을 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징질서를 지탱하는 모든 지지대의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실패를 예정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지젝은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약속된 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는 없으나, 주체와 상징계의 불완전한 구성으로 인해서 약속된 것을 끊임없이 열망하는 운동 속으로 내던져지게 된다고 본다. 지젝이 보기에는 이 내던짐이야말로 예정된 패배를 숙명으로 받아 안고 가는 저항적 행위의 출발점이다. 사회적인 파국이 끊임없이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지젝은 이 행위를 통해 주체를 붙드는 모든 종류의 환상을 횡단함으로써 주체의 현재적 규정들을 이데올로기로서 기각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위치를 주체가 떠맡을 수 있다고 본다.²⁶⁾ 이런 이유 때문에 초기의 지젝은 크레온에 맞서 법의 중지를 요구한 안티고네를 ‘패배를 떠안는 주체’로서, 패배를 반복하는 주체로서, 주체의 새로운 위치를 설정한 전형으로 지목한다.

26) “환상의 횡단은 언어로서의 타자와 욕망으로서의 타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위치를 주체가 떠맡는 것을 내포한다.”, 브루스 핑크(B. Pink)에 의하면 라캉에게 있어서 환상의 횡단이란 상징적 장 안에서 주체의 재배치인 것이지, 상징적 장의 넘어섬이나 이것의 파괴가 아니다. 지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라캉으로부터 환상의 횡단을 가져다 쓰고 있다. B.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0, 124~125 쪽 참조.

물론 우리는 ‘환상의 횡단’이라는 지적의 주장이 패배주의와 비관주의의 적 전망으로 착색되어 있을 뿐 정치적 실천과 관련하여 아무런 현실적 참조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²⁷⁾ 또한 그가 주장하는 주체의 저항적 행위와 실패의 반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적의 이론은 현재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면 그 어떠한 종류의 행위이든 이를 정치적 저항 행위로 승인해 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실제로 초기 지적은 생태주의 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인종차별반대 운동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사회변혁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변혁 프로그램들이 계급투쟁에 기반한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삼지 않으며, 계급투쟁의 지형으로부터 이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적은 이 프로그램들이 주체의 전반적인 행동과 신념의 양상을 변형시키고, 주체의 생활패러다임 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의 새로운 위치를 창출하는 급진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²⁸⁾

우리는 여기에서 지적의 초창기 저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과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두 저작 사이의 단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두 저작 사이의 단락을 가르는 지적의 자기비판

27) “그것[실재: 필자 첨가]은 단지 어떤 중심적인 불가능성을 각인하는 상징적 구조 내의 구멍, 공백이다. 주체를 실재의 응답으로 정의하는 라캉의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빈자리를 그의 상징화의 실패를 통해서 쓸 수 있는데, 이는 주체란 그의 상징적인 표상과정의 실패하는 지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S. 지적,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292~293쪽.

28) S. 지적, 김소연·유재희 옮김, 『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323~324쪽 참조. 지적의 이러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포스트 맑스주의의 근본기조를 반영한다. “현재의 상황에 특징적인 것은 민주주의적 투쟁들의 증가이다. 평등을 위한 투쟁들은 더 이상 정치적 및 경제적 영역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권, 동성 연애권, 다양한 지역적, 인종적 소수파의 권리 등 많은 새로운 권리들이 뚜렷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적 투쟁들을 접합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진정한 다원주의, 즉 주체들의 다원주의(pluralism of subjects)를 제도화해야 한다.”, 샬탈 무페, 「헤게모니와 새로운 정치주체」,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E. 라클라우/C. 무페, 김성기 외 옮김, 도서출판 터: 1990, 255쪽.

은 한편으로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질서체제의 전지구적 보편화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가속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포스트 맑스주의적 실천에 대한 지적의 비판적 거리두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III. 혁명적 레닌주의로 전향하기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슬라보예 지젝을 서구 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나게 한 저작은 1989년에 라클라우(E. Laclau)의 서문을 달고 출판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다. 라클라우는 이 책에 바쳐진 서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포스트마르크시적 시대에 사회 민주주의적 정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문제에 이론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라면 이 책은 지나칠 수 없는 필독서”²⁹⁾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암시를 통해 지젝의 이 텍스트가 지닌 위상학적 자리를 포스트 맑스주의 속에 지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1991년에 출간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의 제2판 「서문」에서 지젝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순수한 민주주의에 대한 예찬과 마르크시즘 고유의 사고 사이에 미묘하게 동요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은 포스트 맑스주의를 그 한가지로 지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적 잔재의 산물이자, 맑스주의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오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호한 입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젝은 ‘라캉의 헤겔 독법을 명확히 하고 행위 개념을 정교히 함으로써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작업’³⁰⁾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젝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헤겔 변증법의 고유한 구조를 정식화하는데 실패했으며, 부정의 부정이라는 곤경이 일종의 실

29)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16쪽.

30)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21쪽 참조.

체변화를 통한 또 다른 주체로의 이행이기는 하지만, 그 최종적 결말이 더 큰 파국의 도입을 통해 이전의 곤경을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 장의 돌파로서 낙관적 전망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모호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지젝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실패를 찬양할 위험성, 즉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행위이며, 진정으로 윤리적인 자세는 영웅적으로 이 실패를 껴안는 태도라는 생각'을 내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안티고네'로부터 이 행위의 전형을 찾는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고 진단한다.³¹⁾ 이러한 자기비판의 결과 지젝은 "대타자의 제거, 즉 제도적인 상징체계 속의 지지대를 제거"³²⁾하는 것을 모든 정치적 행위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젝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변화와 맞물리면서, 그를 혁명적 레닌주의자로 바꿔 놓는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징적 장 안에서 주체의 모든 저항적 제스처는 실패를 예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의 반복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현실적 상징질서에 파국이 도입될 수는 없었지만, 주체가 이 일련의 실패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떠안는 제스처는 현존하는 상징적 질서를 비껴나갈 수 있는 주체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패배를 예정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체는 최악의 것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포스트 맑스주의적 맥락에서 지지되는 다양한 사회 변혁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현실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전망을 열어주기 때문에 옹호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제스처 가운데 최선의 제스처'라는 점 때문에 지지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젝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정치체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31) 인용문 각각은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27~28쪽, 12쪽, 19쪽 참조.

32)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93쪽.

오늘날의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이 실패한 것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어떤 것,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초창기 지젝은 이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해한다. 초기의 지젝에게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아무런 내용도 지니지 않은 ‘텅 빈 형식’에 불과한 기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는 ‘폭력적 추상화를 통해 그 실질적 주체를 삭제해 버린 텅 빈 기표’³³⁾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기의 지젝은 민주주의가 갖는 이러한 폭력적 추상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려는 모든 일련의 제스처들은 전체주의로 전도될 위험이 있다.³⁴⁾ 이 때문에 지젝은 민주주의의 부정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기입된 이 추상성이 주체의 다양한 전복적 제스처를 허용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³⁵⁾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에서의 지젝에게 ‘민주주의는 초계급적 실재’였다.³⁶⁾

그러나 지젝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후,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승리를 구가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투쟁의 장이며, 무엇보다도 과거의 전통을 전유하기 위한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³⁷⁾고 진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33) S. 지젝, 『뻘뻘하게 보기』, 322쪽. “민주주의라는 관념에는 구체적인 인간적 내용의 충만함이나 공동체적 결연의 순수성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개인들의 형식적 연결이기 때문이다.”

34) S. 지젝, 『뻘뻘하게 보기』, 323쪽.

35)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254쪽. 혹은 지젝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참조. “민주주의가 모든 종류의 조작과 부패, 민중선동에 의한 지배 등을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질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S.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255쪽.

36)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의 서문에서 라클라우가 지젝의 이 책을 격찬한 것이다. 포스트 맑스주의의 강령이 무엇인가? 계급적대의 상대화다. 결여된 주체의 행위는 생태주의, 급진적 페미니즘 등 다양한 의제들을 상징적 돌파의 주요한 축들로 취할 수 있었다. 지젝의 급진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초 및 입장변화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 김성우, 「급진민주주의와 그 윤리적 기초에 관한 지젝의 헤겔주의적 비판」, 『시대와 철학』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37) S. 지젝, 「민주주의에서 신의 폭력으로」,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취하는 기만적 민주주의적인 제스처를,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급진좌파(포스트 모더니즘적 좌파)의 자유주의적 제스처를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전자의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권력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형식적 절차로서의 민주주의, 즉 수많은 호모 사케르(homo sacere)들을 양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이며, 후자의 자유주의는 '경제의 탈정치화' 현상에 근본적으로 몰입하지 않은 채 정치적 비판의 자유만을 향유한다. 전자의 입장에 서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중을 배제하고, 후자의 입장에 서면 경제적 계급적대를 말할 자유가 금지시된다.³⁸⁾

지젝은 보수 우익과 급진 좌파들이 벌이는 가짜 싸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허용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허용은 오직 '지배적인 정치적 합의에 실제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자유주의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인 합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³⁹⁾는 암묵적인 준칙을 따르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자유다.

이 가짜 싸움 속에서 지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자유가 마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오도되는 환상이 만연해 있으며, 민주주의마저도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속성인 것처럼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난장이: 2010, 167쪽.

38)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젝의 비판적 사유는 흔히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단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81쪽. 다시 말해 지젝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강요된 선택'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39) 우리는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대한 예상, 인권침해, 성차별, 동성애 혐오, 반페미니즘, 멀리 떨어진 나라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에서 점점 늘어나는 폭력, 제1세계와 제3세계, 부유한 사람들과 빈곤한 사람들 사이의 간극, 디지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하는 강력한 충격” 등등 모든 것을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 자유를 지탱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질서체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S.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뼈뺀 성찰』, 10~11쪽 참조.

럼 간주된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적 자유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널리 퍼진 이 통치 이데올로기에 대해 지젝은 “오늘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모든 특징(가령 노동조합, 보통선거, 무상 의무 교육, 언론의 자유 등)은 19세기 내내 하층계급이 길고도 힘든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자본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전혀 아니”⁴⁰⁾라고 단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정치 철학적 담론들 내에서 급진적 좌파들의 탈경제적 노선이다. 이미 포스트 맑스주의의 기본 강령을 간략히 언급한 바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근저에 놓인 자본적대, 경제적 적대, 계급적대로부터의 이탈을 이론적 공리로 삼고 있는 포스트 좌파들에게 민주주의란 텅 빈 기표,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포스트주의적 투쟁, 즉 다양한 투쟁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젝은 다양한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전개되고 있는 이 투쟁의 자유화야말로 오늘날 좌파가 처해 있는 본질적 곤경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젝은 오늘날 좌파의 곤경을 돌파하고 우파의 기만적 책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의 자유화로 인해 은폐되어 버린 계급적대를 직시함으로써, ‘정치냐 경제냐’라는 양자택일의 입장을 기각하고 정치와 경제의 입장에, 즉 정치경제학적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지젝은 우선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재 정비한다.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실재’를 상징적 장의 봉합이 실패한 지점을 가리킴으로써 상징계와 실재 사이의 간극을 빈번하게 허용한 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에서 지젝은 ‘실재=상징계’라는 등식을 통해 양자 사이의 간극과 심연을 메워 버린다. 실재란 부정의 부정을 통해 더 큰 간극과 틈새를 도입하는 파국의 다른 이름이 아니며, 또한 도달 불가능한 어떤 것이기에 주체가 그것을 위해 예정된 패배를 따라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게 만드는 불활성 물질도 아니다. 지젝은 실재란 곧 ‘현실의 쩡그림’이라고, 다시 말해 실재 그 자체가 현실의 쩡그림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⁴¹⁾ 실재는 상징적 장에서 오직 왜곡된 관점을 통해서만 현

40) S. 지젝, 『민주주의에서 신적 폭력으로』, 172쪽.

41)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32~33쪽. “실재는 그 자체

시된다. 실제와의 조우는 우리가 서 있는 상징질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삐딱한 시각’⁴²⁾으로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상징계와 실제계의 이러한 해석은 지젝의 그 자신에 대한 비판적 작업으로부터 추출해 낸 더욱 급진적인 헤겔적 독해의 결과물이다. 헤겔의 변증법이 본질과 현상이 간극을 허용하지 않고, 본질을 오직 현상으로서의 현상, 현상의 배가만을 의미하듯이,⁴³⁾ 지젝은 “이 실재는 도달할 수 없는 현상계 너머가 아니라 단지 그 현상들의 배가doubling,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현상’ 간의 간극 혹은 관점의 이동”⁴⁴⁾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독해로부터 헤겔의 부정성, 실체, 절대자 등은 그 안에 어떤 틈새와 간극, 혹은 공백이나 파국이 빗금 그어져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젝의 헤겔 독법에 의하면, 본질은 현상의 왜곡이자, ‘관점 이동된 현상 자체’이며 실체는 주체의 왜곡이자 관점 이동된 주체다. 변증법의 두 대립 항은 오직 이러한 관점 이동의 방식을 통해 하나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독해를 통해 지젝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 소환한 행위의 전형, 패배를 안고 가는 주체 안티고네를 기각하고, 상징계 내부로부터의 돌파를 감행할 새로운 행위 개념을 정초하려고 한다. 실재가 현실의 쩡그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젝의 작업은 현실 속에 기입된 이 쩡그림, 현실의 왜상(실재)을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들춰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의 좌표를 재배치하는 데 집중된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역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구현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제스처는 거기에 새겨진 왜상으로서의 실재, 즉 계급

로 현실의 쩡그림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관점에 다름 아닌 것, 그 자체로는 어떠한 실체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왜곡을 통해서만 현시되는 어떤 것이다.”

42) 지젝은 ‘현실의 쩡그림으로서의 실재’를 ‘시차적 관점’(parallax view)라고 바꿔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S. 지젝,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14~15쪽 참조.

43) “본질은 자기 자신 속으로의 가현함(Scheinen)이다.”, G. W. 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I*, in *Werke in zwanzig Bd.*, 6, Suhrkamp: Ffm., 1980, 14쪽.

44)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33쪽.

의 분할선을 따라 추방된 별거벗은 생명들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로를 통해 현실 속에서 쩡그리고 있는 실재를 가시화하고, 현실을 내적으로 균열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젝은 탈계급, 탈이데올로기로 규정된 현대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사회에 계급투쟁이라는 왜상(쩡그린 실재)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행위라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지젝은 급진민주주의자로서의 그의 초기 입장을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현상으로부터의 관점의 이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계급적 사유를 요청한다.⁴⁵⁾ 예컨대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계급적 기능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현실의 쩡그림이자, 그 현상의 실재다. 탈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라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 계급지배와 계급투쟁이라는 실재가 쩡그리고 있다. 지젝은 현실의 쩡그림으로서의 실재를 전유하기 위해, 다시 말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적 전유를 위해 ‘레닌으로의 복귀’ 혹은 ‘레닌의 반복’을 주장한다. 지젝에게 ‘레닌을 반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왜곡된 실재를 들춰냄으로써 현실 좌표를 재배치하기 위한 가장 급진적인 행위가 된다.

IV. 레닌의 반복과 공산주의 좌표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사회 운동들을 목도한다. 환경보호 운동, 협동조합 운동, 지역화폐 운동과 마을 공동체 운동, 여성 운동과 인권운동 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

45) “정확히 민주주의의 환영은-그와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계가 직접적으로 감지되는 지점은-선거에서의 승리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 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환영은 정확한 의미에서 형식주의적이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생산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권력의 한 형태”다. S. 지젝,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103쪽.

향으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 실천들이다. 이 모든 종류의 운동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통해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귀결되는 부조리와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지젝은 우리 사회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포진해 있는 저와 같은 운동들이 전적으로 무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운동들이 본질적으로는 더 큰 문제, 즉 자본주의의 작동논리와 그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데 놓여 있다.⁴⁶⁾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운동들은 오직 '[사회가 허용한] 한계를 넘지는 않는다'라는 암묵적 준칙을 따를 경우에만 지지를 받는다.⁴⁷⁾ 지젝은 이 암묵적인 준칙을 '자본주의의 극복 불가능성'이라고 규정한다. 한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모든 종류의 실천들은 지젝이 보기에 일종의 "혁명 없는 혁명"⁴⁸⁾에 불과할 뿐이다.

지젝이 '레닌으로의 복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지만, 단 하나 '자본주의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허용되어 있지 않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레닌이라는 이름'은 '혁명 없는 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빗장을 걷어내기 위한 사유와 실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젝에게 레닌으로의 복귀와 레닌의 반복은 '사고금지'(Denkverbot)를 '금지'하기 위한 전복적 몸짓의 신호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지젝이 21세기에 레닌이라는 이름을 떠올려야 한다고, 다시 말해 왜 레닌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짚고 넘어갈

46) S. 지젝, 민승기 옮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경희대학교 출판 문화원: 2013, 43~45쪽 참조. 지젝이 들고 있는 예들은 생태주의 운동,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제3세계 어린이를 위한 모금 운동 등이다. 자본주의 주체들은 이러한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히며, 이 믿음을 통해 자본주의는 순탄한 행로를 계속할 수 있다.

47) S. 지젝, 이서원 옮김, 『혁명이 다가온다』, 도서출판 길: 2006, 40쪽.

48) S. 지젝, 정영목 옮김, 『지젝이 만난 레닌』, 교양인: 2008, 15쪽.

필요가 있다.

첫째, 지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재적 상황이 20세기 레닌의 시대를 반복한다고 진단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레닌은 제2인터내셔널의 수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맑스주의에 대한 배반적 행위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맑스주의 이념의 타락상을 몸소 입증해 준 제 2 인터내셔널 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애국주의적 노선변경이야말로 혁명에 대한 배반행위이자, 프롤레타리아트적 관점으로부터의 이탈로서, 우리는 이것이 역사적 과정에서 독일노동자 혁명의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알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급진적 좌파들의 제스처는 레닌 당대 수정주의자들의 제스처를 반복하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혁명 전에 팽배해있었던 혁명에 대한 전망 상실의 분위기는 자본주의 극복 불가능성이라는 오늘날의 암울한 분위기의 반복이다. 다시 말해 지적은 우리 시대가 레닌의 시대를 닮았으며, 레닌의 시대를 반복한다고 진단한다.

둘째, 20세기 초 전반적인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레닌이 취했던 과감한 결단과 실천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자본주의 극복 불가능성’이라는 빗장을 걷어치울 유일한 길이다. 이 길은 노동자들의 자생성 테제를 이론적 논거로 삼아 혁명의 시기 상조론을 펼치면서 맑스주의의 이념적 타락을 주도했던 수정주의자들의 길이 아니며,⁴⁹⁾ 더욱이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회피한 채, ‘그럭저럭 쓸 만한 자본주의’로의 길을 모색하는 혁명 없는 혁명의 길도 아니다. 지적이 취하는 레닌은 ‘과감하게 도약하는, 현재의 역설적 상황에 몸을 던지는, 기회를 붙들고 주저 없이 개입하기’를 주장하는 레닌이다. 다시 말해 레닌은 ‘혁명의 대타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혁명이란 그 자체로 승인될 뿐’이라는 것을 입증한 기표다.⁵⁰⁾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지적은 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과 테러

49) 노동자들의 자생성 테제 및 당대 경제주의자들에 대한 레닌의 비판은 V.I.레닌, 최호정 옮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 출판사: 2005 참조.

50) S. 지적, 한보희 옮김,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새물결: 2008, 177쪽 참조/S. 지적, 『혁명이 다가온다』, 31쪽 참조.

(좋은 테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레닌이 붙들었던 진리의 당파성 테제를 지지하는가 하면, 레닌을 전형으로 하는 영웅적 지도자 숭배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⁵¹⁾

그렇다면 지젝은 레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당장 자본주의를 전복할 혁명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 ‘레닌으로의 복귀’라는 강령 배후에 놓인 지젝의 시대진단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지젝이 따르고자 하는 레닌, 즉 ‘역사의 필연적 발전법칙’이라는 혁명의 대타자를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고, 무조건적인 결단과 실천을 레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모한 것 아닌가? 또한 자본주의 너머라는 대안적 전망을 상실해 버린 오늘날의 상황이 20세기 레닌 당대의 상황을 반복한다는 지젝의 진단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기 위해 그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너무나 과격하지 않은가?

필자는 지젝이 혁명의 대타자를 치워버리는 주체의 도약과 행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주의주의(voluntarism)적인 경향으로 경도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상호 주관적인 인정의 문화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좋은 테러를 옹호하는 지젝의 입장이야말로 ‘지적인 테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일부 비판자들의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지젝의 도발적 주장을 불러온 문제의식을 간과하고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지젝이 레닌을 통해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리의 당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젝은 진리의 당파성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계급적 사유를 요구하며, 이 계급적 사유가 참조해야 할 좌표를 ‘공산주의’에 두고 있다. 지젝은 진리의 당파적 관점을 ‘편들’⁵²⁾으로,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편에 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

51) “사람들은 흔히 ‘불가능한 것을 해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지도자란 문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자이다.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복종이야말로 자유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인 것이다.”, S.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378쪽 참조/“영웅적인 준비태세 [……] 하지만 이러한 테러야말로 자유의 조건이다.”, S. 지젝,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257쪽.

리에게 필요한 진리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진리가 당파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젝은 레닌을 따라 진리란 철저히 프롤레타리아트적인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진리가 보편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편을 드는 당파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오늘날 진리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붙는 '보편적'이라는 형이상학적 수사가 부르주아적 계급 편향성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이 놓여 있다. 자본주의적 국가권력 안에서 우리가 사유해야 할 진리는 부르주아적인 계급적 편향성을 은닉하는 형이상학적인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국가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창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배제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진리여야만 한다. 따라서 진리란 오직 하나의 계급적 편향성으로부터 다른 하나의 계급이 탈취해 오는 투쟁을 통해서만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부르주아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로의 권력 탈취란, 궁극적으로는 부르주아라는 계급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라는 계급 자체의 소멸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지젝의 이러한 사고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의 논의 속에서도 반복된다. 민주주의란 최악의 정치체제이지만, 그것 이외에 더 나은 정치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초기 지젝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은, 진리의 당파성이라는 레닌의 테제를 수용하면서 급격하게 변경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의 편향성에 기여하는 부르주아 권력의 계급적 작동방식으로 규정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원활한 작동에 일조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이 이데올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기입된 계급적 편향성을 직시하고, 민주주의(demokratia)에 적합한 이름 그대로 민중(demos)의 것으로 전유해야만 한다. 이것은 '선거'라는 부르주아적 축제의 장에 형식적 거수기로 전락한 '소문자 인민'을 정치체제의 참다운 주체인 '대문자 인민'으로 고양시킴으로서 인민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공명한다.⁵²⁾ 지젝에 의하면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수행된 민중에 의해

52) “사실상 맑스가 말한 계급투쟁은 모든 인민을 분할하는 내부의 전쟁이자, 계급 없는 사회의 메시아적 왕국에서 [대문자] 인민과 [소문자] 인민이 일치하게 될 때에만,

폭력과 테러는 과감하게 긍정되고 지지되어야 한다.

지젝은 그 자신이 옹호하는 민중폭력⁵³⁾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것과 무관하며, 그렇다고 오늘날 빈번하게 자행되는 모든 종류의 민족적·인종적·종교적 테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⁵⁴⁾ 오히려 지젝이 옹호하는 폭력 혹은 ‘좋은 테러’란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국가권력 너머를 겨냥함으로써 이 국가권력 안에 존재하는 철벽같은 계급적 경계선 자체를 해체해 버리기 위한 해방의 몸부림이다. 이 테러의 주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⁵⁵⁾이며, 이들이 자본과 권력을 향해 벌이는 폭력과 테러는 오히려 이들 계급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자본의 권력 자체를 무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투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지젝의 이와 같은 정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적 모든 영역을 해방시키

정확히 말해서 어떤 인민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에만 종식되는 내부의 전쟁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다.”, G. 아감벤,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 없는 수단』, 난장이: 2009, 42~43쪽.

- 53) 지젝은 폭력과 관련한 그의 논의에서 벤야민(W. Benjamin)의 신적폭력을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다양한 형태의 민중폭력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뼈똥한 성찰』, 245~289 쪽 참조. 또한 지젝의 폭력론을 벤야민의 신적폭력의 승계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줄고, 「폭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제14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4 참조.
- 54) S. 지젝, 「로베스피에르 혹은 공포라는 ‘신성한 폭력」, 로베스피에르, 배기현 옮김, 『로베스피에르-덕치와 공포정치』, 프레스미안 북: 2009, 17쪽 참조. 지젝의 관점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명백한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스라엘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은 자유민주주의적 협잡꾼들의 공모의 결과에 불과하다.
- 55)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지젝의 정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동자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지젝은, “사람들은 아마도 마르크스가 노동계급(‘객관적인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과 프롤레타리아(‘특정한 주체적 입장으로’, ‘스스로를 위한 계급’, 사회적 부정성의 체현으로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를 (암묵적으로) 구별한 것을 복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예컨대 민중폭력의 주체로서 지젝이 옹호하고 싶어 하는 프롤레타리아트란, 객관화된 범주로서 노동자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배제되었지만, 이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주체적 자각과 실천을 행하려는 의지의 주체를 지칭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S. 지젝, 『혁명이 다가온다』, 273쪽.

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계급”⁵⁶⁾으로 규정하는 맑스의 관점을 반복하며, 레닌의 혁명은 맑스적 정의의 실천인 셈이다. 지젝은 이 실천의 다른 이름을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지젝은 최근 기고글에서 ‘공산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내재적 척도’⁵⁷⁾라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지젝의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해 버린 낡은 유물이 아니라, 현실 자본주의의 유연한 흐름을 견제할 수 있는 좌표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지젝의 공산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미래적 대안 체제의 이름으로 환원될 수 없고, 한때 좋았던 역사적 시기의 회상과 맞물려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지젝에게 공산주의는 현실 자본주의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쩡그리고 있는 실재의 다른 이름이다.

공산주의는 지젝 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오랜 역사적 시간 속에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이념적 좌표였으며, 이와 동시에 현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혁하기 위한 부정적 운동⁵⁸⁾이었다. 우리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를 주었던 사람은 맑스였으며, 지젝은 레닌을 경유하는 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우회로를 통해, 디스토피아의 완성이자 자본주의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21세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거론하려고 하지 않는 맑스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품어야 할 ‘새로운 낫꿈’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무런 ‘이념적’ 장애물도 없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오늘

56) K. Marx, “Zur Kritik des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in *MEWL*, Dietz: Berlin, 1983, 390쪽(강유원 옮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헤겔 법철학 비판』, 이론과 실천: 2011).

57) S. 지젝, “좌파들의 말뿐인 진보주의 거부해야”,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2호, 2013.11.08 참조.

58) “우리에게 공산주의는 조성되어야 할 하나의 상태(*Zustand*), 혹은 현실이 따라야 할 하나의 이상(*Ideal*)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태를 지양하는 현실적인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일컫는다.” K. Marx/F. Engels, *Deutsche Ideologie*, in *MEW* 3, Dietz: Berlin, 1978, 35쪽(김대웅 옮김, 『독일이데올로기 I』, 두레: 1989, 78쪽. 본문의 인용은 번역본을 따랐다).

날의 '자본주의'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타협을 거부하는 확고한 좌파적 관점의 견지를 뜻할 것이다. 지젝의 레닌주의는 우리의 상징질서를 지탱하는 지지대로서 '자본주의의 종말 불가능성'이라는 사고금지를 '금지'하기 위한 전략적 비틀기인 셈이다.

V. 글을 마치며

이 글은 지금까지 포스트 맑스주의자 지젝으로부터 레닌주의자로의 지젝으로의 변화 과정을 오늘날의 정치경제 질서 체제에 대한 그의 진단과 결부지어 고찰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을 패배를 안고 가는 환상의 횡단으로부터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지지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혁명적 레닌주의로의 이행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많은 연구자들은 지젝의 레닌주의와 공산주의가 구체성을 결여한 공허한 구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계급적 관점에서 좋은 데리를 옹호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운운하는 지젝의 선동적 주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원칙적 반대라는 그의 입장만큼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일부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지젝이 레닌으로의 회귀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좌표의 고수라는 원칙만을 반복할 뿐,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들이나 전략적 지침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지젝은 이러한 일련의 비판적 반응들과 입장들을 비틀어서 “레닌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 시기에 잘못이 있다는 신호라면 어쩔 텐가?”⁵⁹⁾라고 반문한다. 레닌과 공산주의라는 기표를 소환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우리가 레닌과 공산주의를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것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 이유 속에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은 지젝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거나 '지젝만이 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 필자는 지젝의 과격한 슬로건이 우리가 내

59) S. 지젝, 『혁명이 다가온다』, 274쪽.

면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믿음과 지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지젝이 붙들고 있는 레닌이라는 기표는 모든 저항적 동력을 상실해 버린 오늘날의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저항과 반란의 오르막길'⁶⁰⁾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

지젝은 우리에게 '레닌이 실패했다는 것을, 그것도 엄청나게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젝은 '레닌의 반복'이 '레닌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레닌의 실패 속에 여전히 구해낼 만한 유토피아적 불꽃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⁶¹⁾이라고 덧붙인다. 레닌과 공산주의는 바로 이 유토피아적 불꽃을 점화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일 뿐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는 지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지젝은 궁극적인 대안이나 답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너머를 사유할 수 있기 위한 경유지이자 출발점일 뿐이다.⁶²⁾

지젝이 제시하는 레닌과 공산주의라는 기표를 아직도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이분법 속에서 사유하면서 공산주의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젝의 다음과 같은 말을 참조하라고 권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체제가 그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테러와 비참한 생활고를 양산하면서 참담하게 실패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자면 유토피아적 기대가 살아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기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조차도 가져볼 수 없었을 것이다.⁶³⁾

60) W. 벤야민, 김영옥 외 옮김,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9, 87쪽.

61) S. 지젝, 『혁명이 다가온다』, 273쪽.

62) 이와 관련해서는 최진석, "지젝은 공산주의 주체가 아니라, 경유지일 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9호, 2014.06.03. 참조.

63) S.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201쪽.

참고문헌

- Hegel, G. W. F., *Wissenschaft der Logik I*, in zwanzig Bd., 5, Ffm.: Suhrkamp, 1970.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II*, in zwanzig Bd., 6, Ffm.: Suhrkamp, 1970.
- Marx, K., “Zur Kritik des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in *MEW1*, Dietz: Berlin, 1983(강유원 옮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헤겔 법철학 비판』, 이론과 실천: 2011)
- _____/ Engels, F., *Deutsche Ideologie*, in *MEW 3*, Dietz: Berlin, 1978(김대웅 옮김, 『독일이데올로기 I』, 두레: 1989).
- 김성우, 「급진 민주주의와 그 윤리적 기초에 관한 지적의 헤겔주의적 비판」, 『시대와 철학』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 김 현, 「공백으로서의 부정성」, 『헤겔연구』 25, 한국헤겔학회, 2009.
- _____, 「폭력 그리고 진리의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제14권 2호, 2014.
- 나종석, 「슬라보예 지적의 헤겔 변증법 해석에 대한 비판」, 『사회와 철학』 27,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4.
- 레닌, V. I., 최호정 옮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 출판사: 2005.
- 마이어스, T., 박정수 옮김, 『누가 슬라보예 지적을 미워하는가』, 앨피: 2005.
- 무페, C., 「헤게모니와 새로운 정치주체」, 『사회변혁과 헤게모니』, 라클라우, E/무페, C., 김성기 외 옮김, 도서출판 터: 1990.
- 버틀러, J./라클라우, E./지젝, S., 박태진/박미선 옮김, 『우연성, 헤겔모니, 보편성』, 도서출판b: 2009.
- 벤야민, W., 김영옥 외 옮김,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도서출판 길: 2009.
- 스타브라카키스, Y., 이병주 옮김, 『라캉과 정치』, 은행나무: 2006.
- 아감벤, G., 김상운·양창렬 옮김, 『목적 없는 수단』, 난장이: 2009.
- 지젝, S., 김소연·유재희 옮김, 『뼈뚫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 _____, 박정수 옮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사

- 량: 2004.
- ____, 이수련 옮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2.
- ____, 최생열 옮김, 『믿음에 대하여』, 동문선: 2003.
- ____, 이서원 옮김, 『혁명이 다가온다』, 도서출판 길: 2006.
- ____, 이성민 옮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2007.
- ____, 이성민 옮김,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판b: 2008.
- ____, 한보희 옮김,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새물결: 2008.
- ____/레닌, V.I., 정영목 옮김, 『지젝이 만난 레닌』, 교양인: 2008.
- ____, 김서영 옮김, 『시차적 관점』, 마티: 2009.
- ____,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 ____, 「로베스피에르 혹은 공포라는 '신성한 폭력」, 로베스피에르, 배기현 옮김, 『로베스피에르-덕치와 공포 정치』, 프레시안북: 2009.
- ____, 「민주주의에서 신적폭력으로」,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난장이: 2010.
- ____, 이현우 외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폭력에 대한 6가지 뼈뚫한 성찰』, 난장이: 2011.
- ____, 민승기 옮김, 『정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____, 조형준 옮김, 『헤겔 레스토랑』, 새물결: 2013.
- ____, “좌파들의 말뿐인 진보주의 거부해야”,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2호, 2013.11.08.
- 최진석, “지젝은 공산주의 주체가 아니라, 경유지일 뿐”,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9호, 2014.06.03.
- 케이, S., 정현숙 옮김, 『슬라보예 지젝』,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 파커, I., 이성민 옮김, 『지젝』, 도서출판b: 2008.
- 핑크, B.,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0.
- 홍준기, “지젝의 공산주의가 공허한 이유”,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3호, 2013.12.11.
- ____, “무비판적 담론이 ‘지젝 환상 키워’”, <르몽드디플로마티크> 69호

2014.06.03.

Abstract**From the Traverse of Fantasy to the Repetition
of Lenin****- With Emphasis on the Discussions of S. Žižek -**

Hyun, Kim

The researchers in Korea and abroad have two main perspectives about S. Žižek, who is globally known as a Lacanian Hegelian from Slovenia. One of them has the positive view that Žižek's discourse is a promising alternative to break through today's capitalistic system by returning to 'Marxism-Leninism', whereas the other argues that Žižek's discourse is inconsistent, his interpretation about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e discourse lacks elaboration, and his radical slogans about the 'return to Lenin', 'communism', and 'good terrorism' are only abstract and far from the political circumstances today. Considering these two opposing perspectives, this study discusses the hierarchical foundation of Žižek as a revolutionary avant-gardist and reviews Žižek's theoretical alternative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n this process, it focuses on the transition of Žižek's theoretical perspective from a radical democrat to a revolutionary avant-gardist and overviews his theoretical perspective for the subjective action and political resistance for 'the Traverse of Fantasy', the adherence to the hierarchy based on the partiality of truth, and the foundation of communist utopian plan based on Lenin. By doing so, it proves that Žižek's theory can be significant for today's political stance to reclaim 'the share for the isolated' and argues that it can be a breakthrough against the

Leftist movements.

【Key words】 Real, Symbolic, Imaginary, Subject, Substance, Negativity,
Fantasy, Ideology, Resistance, Action

논문접수일: 2014년 8월 15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6일
게재확정일: 2014년 9월 12일